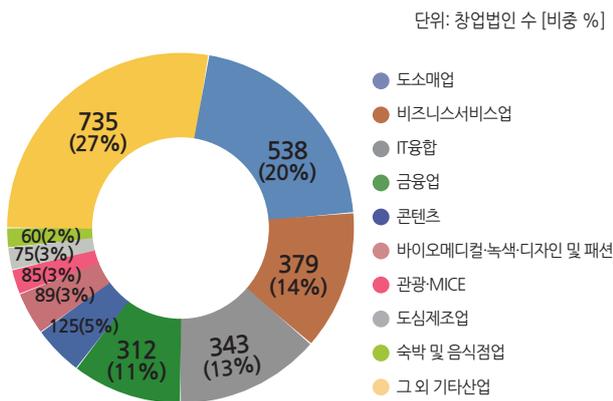


## 산업별 창업 동향

### I 산업별 창업현황

- 2018년 10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,741개
-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538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379개, IT융합 343개, 금융업 312개, 콘텐츠 125개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 89개, 관광·MICE 85개, 도심제조업 75개, 숙박 및 음식점업 60개, 그 외 기타산업 735개가 창업
-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(205개), 제조업(172개), 건설업(114개) 등이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

[그림 1] 2018년 10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

### 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)

- 10월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2.6으로 (전년동월에 비해) 35.6% 급증
- 10월 법인창업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추석 연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추석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법인 창업은 여전히 12.3% 증가
- 올해 10월은 추석 연휴를 끼고 있던 지난해 10월에 비해 법인 등록 일수가 4일 많음
- 이러한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하여 법인창업지수가 35.6% 급상승
- 추석 효과를 제거한 후의 법인 창업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 평균 창업법인 수를 비교한 결과 작년 10월은 일평균 116.2개의 법인 창업, 금년 10월은 일평균 130.5개의 법인 창업이 발

생함. 이를 통해 추석 효과와 무관하게 법인 창업이 전년 동월 대비 12.3% 증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음

- 산업별로 봤을 때 숙박 및 음식점, 관광·MICE,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
- 숙박 및 음식점업(122.2%), 관광·MICE(102.4%), 비즈니스서비스업(74.7%), 콘텐츠(68.9%), IT융합(62.6%), 도소매업(34.2%)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(30.9%) 등 대부분의 산업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
- 올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창업이 부진했던 도심제조업도 10월에는 41.5% 증가로 반전
-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도 분식·김밥 전문점과 한식 음식점업 등 음식점업의 창업이 급증
- 관광·MICE 산업에서는 국내 여행사업과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크게 증가
- 반면 금융업(-8.0%)은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 기타 금융업이 급감
- 그 외 기타 금융업 중 팩토리링활동, 말기환금회사, 생명보험판매서비스 등의 법인 창업이 큰 폭으로 감소

[표 1] 2018년 10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